

태국 국회안내서

Sappaya Saphasathan



태국 하원사무처

외국어지원사무국



Sappaya
Saphasathan
사빠야 사파사탄
ສັປປາຍະສກາສຄານ

태국 국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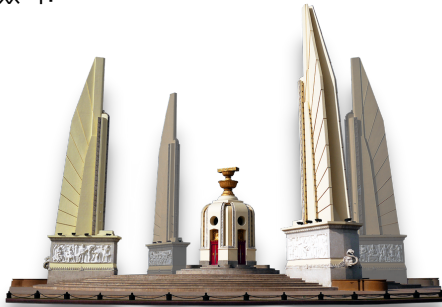


태국은 국왕이 국가의 원수인 입헌군주제 국가이며 1932년에 국가의 최고 법인 헌법이 제정되었다. 헌법에 명기된 "주권은 태국 국민에게 있다."라는 중심원리에 따라 의회제도를 채택하여 구정을 운영하고 있다.

주권은 입법부, 행정부 그리고 사법부로 분리되어 있으며 국왕은 의회, 내각 그리고 법원을 통해 그 권한을 행사한다.

1932년 6월 28일에 수도방위위원회 소속 70명의 회원을 중심으로 하원의원이 구성되었다. '아난타 사마콤' 왕궁에서 처음 국회 본회의가 열렸으며 이곳은 태국 최초의 국회의사당이 되었다.

육군, 해군, 민간인으로 조직된 단체인 '카나랏사던 KHANA RATSADORN'에 의해 국가의 통치제도는 절대 군주제에서 국왕을 국가의 원수로 하는 입헌 군주제로 전환되었다.



'아난타 사마콤'왕궁
에서 열린 최초 의
국회 본회의 모습



아난타 사마콤
왕궁



이후 태국 인구의 증가와 비례하여 국회의원의 수도 증가하자, 아난타 사마콤 궁은 더 이상 국회의사당으로 사용될 수 없을 정도로 좁아졌다.

따라서 1970년에 방콕 두싯의 타논우텡나이 (U-Thong nai road)지역이자 사마콤 궁 뒤편에 있는 부지를 이용한 국회의사당 건립 계획이 국왕에게 요청되어 제가를 받아 1974년에 새로운 국회의사당이 완공되었다. 타논우텡나이에 위치한 국회의사당은 아난타 사마콤 궁보다 공간이 넓었고, 건물도 대리석으로 지어져서 '사파힌 언'이라고 불렸는데 이는 대리석 국회의사당이라는 의미였다. 이곳에서 1974년 9월 19일에 처음 국회가 열렸다.



타논우텡나이 (U-thong nai road)
국회의사당



2008년에는 국회의 역할과 임무 및 국회 공무원과 직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국회 업무의 편의성과 신속성을 위해 당시 총리였던 사막 순터라 (Mr. Samak Sundaravej)정부의 내각은 새 국회의사당 건설 계획과 예산안을 승인했다.

새로 건설될 국회의사당 부지는 차오프라야 강변 두숫지역의 타한로드 (키악 카이)에 있는 48.6에이커 (123라이)의 국유지에 정해졌고 2009년말에는 새로운 국회의사당의 건축 설계안을 선정했다.

새로운 국회의사당은 일명 '사빠야 사파사탄 (Sappaya Saphasathan)'이라고 불리며, '사빠야'라는 말은 '편안함'을 의미하며, 불교적 의미로는 '선행을 위한 모임 장소'임을 뜻한다. 따라서 이 건축물은 불교의 삼계관을 바탕으로 설계되었으며 태국 문화의 정수를 모아 디자인된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본관 중앙의 상층부는 태국 건축 양식으로 설계되어 태국의 이미지를 (Thainess)'을 드러내고 차오프라야강과도 잘 어울리게 했다. 또한 국회박물관, 유리벽, 민족박물관 등을 만들어 일반인들을 위한 학습 장소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했고 하원 및 상원의원을 위한 로비 공간, 민주적 원리에 따라 권리를 표현할 수 있는 큰 규모의 민주광장 등을 마련해 놓았다.

이 같은 국회의사당 건설은 태국 국회의 이미지를 국제적 수준으로 한 단계 끌어 올려주었다. 또한 평화를 지향하고 인간의 정신적 가치의 숭고함을 드러내 주었고 건물의 뛰어난 디자인 뿐만 아니라 공간의 효율적 배분과 편의성도 고려되었다.



'사빠야 사파사탄 (SAPPAYA SAPHASATHAN)'의 의미



'사빠야'라는 말은 '편안하다'는 뜻인데 불교적 의미로 '선행을 위한 모임 장소'라는 뜻이다. 그래서 이곳은 '평화롭고 안정된 자리'라는 뜻이 있다. 과거에는 국가가 위기에 닥쳤을 때 국왕은 백성들과 용기를 갖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어지기도 했다. 이는 인간이 현세의 삶 속에 내세에 대한 믿음을 갖고 살듯이 세속의 삶 속에서도 불교적 수행과 정진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믿음에 바탕을 둔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라따나코신(Rattanakosin)시대에 프라수멘(Phra Sumeru Mountain: 수미산을 의미함)가 만들어졌는데 이는 사회적으로 퇴락 현상이 나타나거나 국가적 위기가 닥쳤을 때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고 정신을 일깨워야 한다는 믿음에서 나온 상징이라고 볼 수 있다.

사빠야 사파사탄은 불교의 '삼계' (Tribhum : 육계, 석계, 무색계)에서 영향을 받아 지어진 것이다. 건물 중앙에 자리 잡은 이 조형물은 국제사회에서 세계인들에게 태국 국회의 위상을 드러내 보이고 평화를 바라는 인간 세계의 희망의 상징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국회의사당의 공간은 30만평방미터 이상이 되기 때문에 기본 설계에서부터 공간 배분 및 건물 경관 조성 등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요구가 수용되었고 여러 공간의 효율적 활용성도 고려되었다. 또한 건물 내부 설계는 이동이 복잡하지 않으면서 장애인과 노약자에 대한 편의 제공도 감안하였다.

'사빠야 사파사탄 (SAPPAYA SAPHASATHAN)'의 설계 목적

새 국회의사당의 설계 목적은 이상성과 효율성,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상성



01. 국가적 측면

국회의사당은 국가 위엄과 태국의 가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공이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태국의 예술과 문화적 바탕에 기반을 둔 발전된 형태의 건축물이어야 한다. 또는 새 국회의사당은 옛날부터 이어져 온 태국의 예술과 문화, 정신과 지혜를 접목 시킨 건축물이어야 한다. 따라서 국회의사당은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을 수 있으며 세계인들에게는 태국의 문화와 미적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곳으로써 태국의 정체성과 상징을 명확히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02. 도덕적 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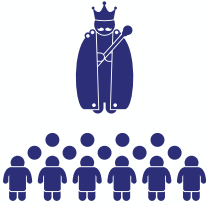
도덕성의 타락으로 인해 오늘날 사람들 간에는 사회적, 정치적 갈등 등의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국민들 마다 사회, 정치적 시각과 의견이 다를 뿐만 아니라 도덕성의 타락과 부정 부패도 현재 직면한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국회의사당은 모든 국민과 사회의 희망을 담고 있는 곳이라는 의미에서 볼 때 국가의 '사빠야'가 되어야 한다. 이는 태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요구되는 지혜와 마음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신성하고 도덕적이며 공정하게 국가를 보위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한다.



03. 지혜적 측면

새 국회의사당은 국민의 지식과 지혜를 고양시킬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하며 따라서 지식 탐구를 위한 장이 되어야 한다. 국민들의 지혜를 한 곳에 모으고 이를 국내, 외 모든 사람들과 나누는 곳이며 이를 통해 국민들의 의식 수준을 한층 더 끌어 올리기 위한 목표를 이루어 가기 위해 실천하는 곳이어야 한다.

이상성



04. 입헌군주제도적 측면

태국은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국왕이라는 정신적 구심점이 있는 나라이다. 국왕은 국가 통치에 있어서 10가지 덕목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새 국회의사당 설계에도 국가적 의식을 진행하기 위한 공간의 배치가 고려되어야 한다.



05. 국민적 측면

국회의사당은 민주적 통치의 상징적 건축물이다. 기본 개념에 따른 설계와 관련된 각 부분들의 배치는 모든 계층의 국민들을 감안하여 이루어졌다. 이것은 국민이 그 무엇보다도 높은 자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고 따라서 국회의사당은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 적극 활용되는 존엄한 장소가 되어야 한다.

효율성 및 삶의 질과 관련하여



1. 공간 활용의 효율성

건물 설계에는 상원과 하원 모두를 고려한 개념을 적용하여 상-하원들의 활동이 원활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실용적 구조가 강조되었다. 그 외에 기타 공간과 외부 공간을 마련해 두었다.

2. 친환경 및 에너지 효율성

국가를 대표하는 건축물로서 대형 건물의 활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치밀한 설계가 이루어졌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관련부서들이 밀접하게 협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3. 공공의 편의를 고려한 설계

장애자, 아동, 노약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4. 보안 및 화재 예방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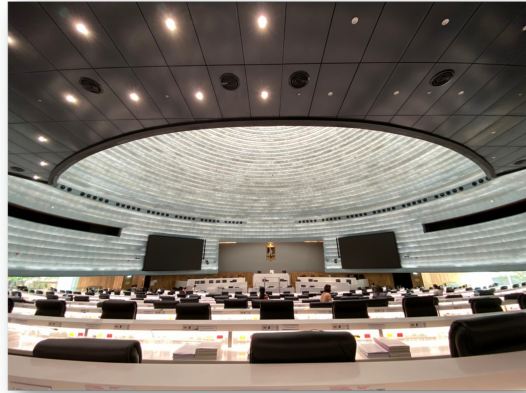
건물의 본체와 주변은 각종 위험과 재난에 대처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를 위해 경험이 풍부한 미국의 전문가들이 고도의 안전 시스템을 설계, 적용하였다.



요약하자면, 국회의사당의 형태나 설계는 일반 건축물과는 달리 태국의 전통적 건축양식을 따르면서 새 시대에 걸맞게 디자인되었다.

또한 태국의 헌법 아래 상, 하 양원의 유기적인 협력활동을 고려했다. 본회의장의 구조는 반원형이며 일반 회의장과 달리 '관' (Kwan : 사람의 머리 위에 있는 정수리를 의미하며 태국인들에게는 의지나 정신의 중심으로 여겨진다)의 상징을 본회의장 설계에 도입했고 회의장이 국가와 국회의 중심이라는 의미를 부여했다.

본회의장은 금색과 은색으로 칠이 되어 있으며 이는 국회 활동이 순수함과 총명함을 바탕으로 수행되어야 한다는 상징이기도 하다.



사빠야 사파사탄 국회의사당의 주요 공간

국회 의례장 국민 의례장은 '프라수메르산'의 중심을 의미하며, 국회의 개원 의례가 진행되는 장소로 활용되고 때로는 외국 지도자들의 맞이하는 영빈관으로도 사용된다.



국회 본회의장 사빠야 사파사탄 국회의사당은 두 개의 본회의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관'(Kwan)

'관' 문양을 본회의장에 천장에 도입한 이유는 태양의 강한 에너지와 그리고 하원의원들의 활동에 은총과 성공에 대한 기원, 안녕과 지혜를 바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1.하원 본회의장 일명 '수리안 본회의장'이라고 함

본회의장 설계의 개념은 태양에서 가져온 것이다. 태양이 지구상의 모든 만물의 근원으로서 생명체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항상 따스한 온기와 빛을 내려주는 것에 비유했다. 이는 마치 국회가 국가와 국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한 신성한 임무를 수행한다 것과도 비유된다.

벽과 천장을 동근 형태로 만들어 이어 놓은 구조는 마치 무한한 영역의 하늘아래에서 회의가 열리는 것과 같은 느낌을 준다.

이 같은 구조는 회의가 열릴 때 많은 에너지와 지혜를 장시간 쏟아내야 하는 의원들이 긴장을 풀고 풍부한 상상력을 갖도록 하기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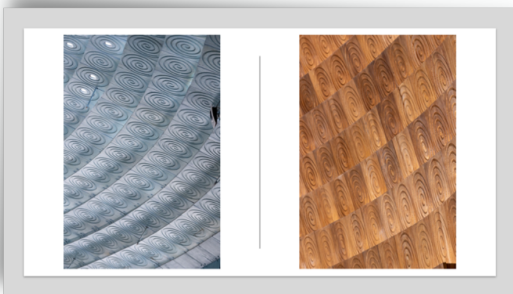
이 회의장은 하원의원의 본회의와 상, 하원합동회가 열릴 때 활용된다.



2. 상원 본회의장 (짚트라 본회의장)

이 회의장 설계의 개념은 달에서 가져왔다. 이곳은 하원의 본회의장 설계의 개념과 짝을 이루는데 달이 온 세상의 만물과 인간을 비롯한 생명체들의 어두운 밤 활동을 돕기 위해 온정의 빛을 비추어주는 것처럼 국회가 국가와 국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신성한 임무를 수행하는 장소임을 비유하고 있다.

이 방을 마치 달과 같은 디자인으로, 수라얀 (태양)과 같은 힘을 가지고 있다. 짚트라 (달)는 달빛이 영원히 인간을 비추는 것처럼 밤 동안 세상을 빛낸다. 마찬가지로 국민과 국가에 평화와 안녕을 가져오는 국회의 신성한 장소이다.



'관'(Khwan)

본회의장에 도입된 '관'(Khwan) 형태의 문양은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다. '수리얀' 본회의장과 마찬가지로 많은 것을 의미한다. 이 회의장에서 '관'(Khwan)은 태양의 뜨거운 에너지와 대비되는 차가운 에너지인 물을 의미한다. 이 두 에너지는 국가 전체의 발전을 위한 하원과 상원 사이의 균형을 이루도록 하기 위한 의미를 나타낸다.

회의장 내 좌석 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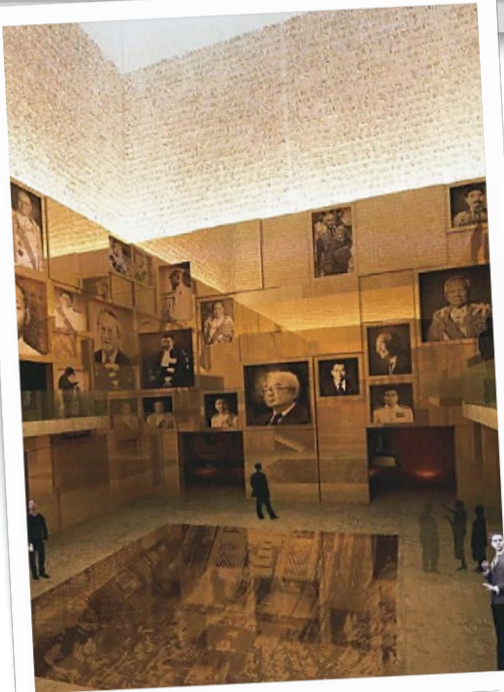
1. 의장석은 회의장 전면의 가운데 자리에 위치한다.
2. 의장석의 오른쪽 좌석은 하원 제1부의장 석이고, 의장석 왼쪽 좌석은 하원 제2부의장석이다.
3. 하원의장 오른쪽 첫 번째 위의 좌석은 총리가 앉는다.
4. 총리석 옆 두 줄은 내각의 좌석이다.
5. 의장석 왼쪽의 두 줄은 상임위원회 좌석이며 회의에 주요 안건이나 사안을 제기 하거나 보고한다.
6. 의장석 아래 왼쪽은 하원 사무총장 좌석, 오른쪽은 사무차장 좌석이다. 모두가 국회가 열릴 때 비서 역할을 한다.



하원의 회의 때 의원들은 소속 정당에 따라 자리잡도록 좌석이 배치되었다. 여당은 의장석의 오른쪽에 자리를 잡고, 야당은 의장석의 왼쪽에 자리를 잡는다.

- 상원 회의장의 회의 좌석은 의원 이름의 태극식 가, 나, 다 순에 따라 배정된다.
- 하원 회의장에서 상, 하 양원합동회의가 열릴 경우 좌석 배치는 상원의원은 의장이 오른쪽에 앉고 하원의원은 국회의장의 왼쪽에 앉는다.

국회박물관



VIP 접견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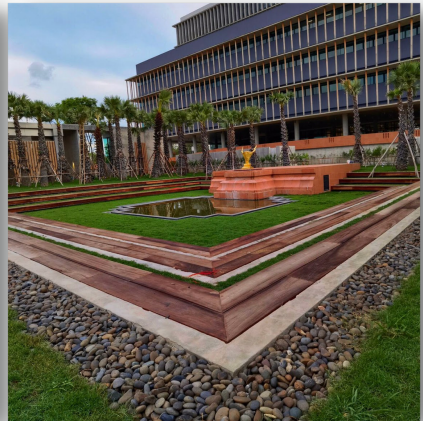


국회의원 접견 로비



차오프라야 강변의 들





민주 광장

태국 국회의 의무와 권한



태국은 1932년부터 국왕이 국가의 원수이며 헌법을 최고법으로 하는 민주주의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헌법에 명기된 '국가의 주권을 국민에게 있다.' 라는 핵심 원칙을 바탕으로 하는 의회체제로 국가를 운영하고 있다. 국가의 권력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3부분으로 나누어져 있고 국왕은 의회, 내각, 법원을 통해 권력을 행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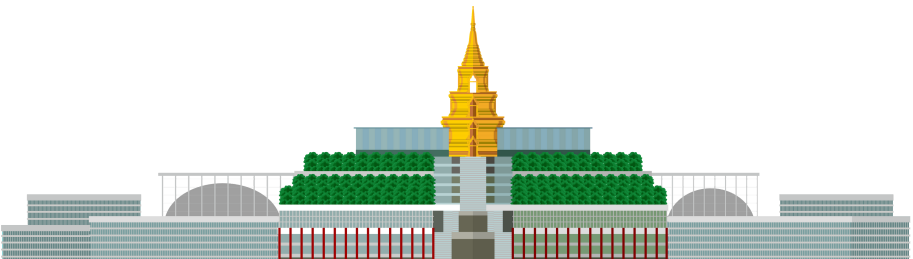
“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

의회는 입법 기관이며 태국 국민의 주권 중 하나인 입법권을 행사한다. 2017년 태국 헌법에서 의회는 하원과 상원으로 구성된 양원제임을 규정하고 있다. 의회는 헌법의 규정에 따라 공동 또는 개별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하원의장은 국회의장, 상원의장은 국회 부의장의 직을 맡는다.

하원은 2017년 태국 헌법에 따라 500인의 의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원은 선거구 제도에 따라 선출된 350인, 정당명부제에 따라 선출된 150인의 의원으로 구성된다. 의원 선출 기준과 방법은 2017년 헌법에 따르며, 의원 임기는 선거일로부터 4년이다.

2017년 헌법은 지식, 전문성, 경험, 직업적 공동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거나, 사회의 다양한 각종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거나 활동 중인 사람 200명 선출하여 상원의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태국 하원사무처
CONTACT US



1111 Samsen Road, Thanon Nakhon Chai Si, Dusit,
Bangkok 10300, Thailand



www.parliament.go.th

Photo : SANGOB 1051 JOINT VENTURE



대국 하원사무처

외국어지원사무국